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میم 공장' 폼 미쳤다! 기발한 새 코너들로 웃음 트렌드 리드!

2025. 5. 13.



대한민국 웃음 트렌드를 이끄는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이 기발한 코너들로 시청자들의 아드레날린을 수직 상승시키며 온라인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뭘 하던 '밈 스타' 자리를 예약하는 초특급 호스트와 웃음 전투력 만렙인 '밈보' 크루가 만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1위 리얼 코미디 쇼.

론칭 첫 주부터 매주 각종 화제성을 휩쓸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 쇼임을 입증하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 7 인기의 중심에는 독창적인 코너들이 업그레이드돼 매화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시즌 7은 사회적인 이슈와 현상을 선도적으로 다루며 차별화된 코미디로 시청자들의 웃음과 공감대를 자극해 수많은 밈을 양산함에 따라 일명 '밈 공장'으로서 대중의 웃음 트렌드를 견인하고 있다.

새 코너 '퇴사자 클래스: 서열 전쟁'은 시청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며 공개될 때마다 화제물이 중이다. 재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한자리에 모인 퇴사자들이 서로 미묘한 차이를 가졌음에도 격렬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서열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고질적인 '비교 문화'를 제대로 꼬집으며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의지보다는 온라인 익명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고 눈치 보는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시청자들의 폐부를 찔렀다는 반응을 끌어냈다. 나아가 '서열 정리 밈' 만화를 차용해 실사화했다는 점에서 'SNL 코리아' 시즌 7의 감각적이면서도 획기적인 표현법을 향한 호평도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패러디와 현실 묘사는 'SNL 코리아'가 웃음 트렌드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저속 노화' 트렌드를 비튼 '고속 노화' 소재로 웃음을 준다거나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유쾌하게 풍자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절묘하게 패러디한 코너들도 폭소를 안기고 있다. 이밖에 화제의 영화를 패러디한 파격적인 코너부터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웹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북부 대공'과 '계약 결혼' 클리셰를 목격한 비주얼로 파괴한 코너 등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반짝이는 아이템들이 'SNL 코리아' 시즌 7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은 사회 현상들을 완벽하게 패러디한 크루들의 호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뱅크'가 돋보이는 창의성에도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진짜 우리나라 커뮤 상황을 정말 잘 비꼬아 만들었다", "SNL 코리아로 커뮤 제대로 이해했네", "SNL 코리아 코너들 반전의 반전 연속", "와 현실 고종 대박. 이게 리얼인듯 ㅋㅋㅋ" 등 가려운 곳을 고품격 코미디로 제대로 긁어준 'SNL 코리아'에 열광하고 있다. 또한 'SNL 코리아' 무대에서 파격 변신한 호스트들을 향해서도 "첫팔을 보자마자 저항없이 터져버렸다. 환장하겠다 ㅋㅋㅋㅋ", "포인트 잘 잡아서 더 킹받네. 배우가 쓸데없이 또 연기를 잘해서 더 열받음 ㅋㅋㅋㅋ" 등 허를 찌르는 변신에 놀라며 매주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SNL 코리아' 시즌 7의 코너들이 화제를 모은 데에는 제작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코미디의 본질을 지킨 크루들의 열연이 있기에 가능했다. 신동엽을 필두로 한 크루 전체가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웃음을 선사하겠다는 일념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몸 사리지 않는 희극 연기를 펼치며 코너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탄생한 작품들이 화제의 밈으로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의 웃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더불어 핵심 크루인 신동엽과 이수지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 홀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SNL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활약으로 방송 부문 남녀 예능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며 다시 한번 작품이 지닌 저력과 파급력을 증명했다.

한편,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현장 방청은 쿠플클럽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